

## 마츠코병 연기 영상 지정 장면 - 현우

### S#9 새벽, 자취집 현관

(이전 상황 설명 : 현우는 중학생 시절 소정의 짝사랑이었지만 소정에게 '너 징그럽다'라는 말을 해서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었다. 이후 몇 년이 지나 현우는 더러운 소정의 자취방에 야식 배달 기사로 우연히 찾아오게 된다.)

**현우** (음식 봉투를 전해주며) 여깁습니다.

**소정** (음식을 받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) 감사합니다.

**현우** (긴가민가한듯 소정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) 저... 혹시 여소정 씨 아니세요?

**소정** 네?

**현우** 부일중 나온 여소정... 아니신가 해서.

**소정** ...맞는데요.

**현우** 아, 맞구나! 나 현우야. 같은 수학 학원 다녔던 정현우. 기억해?

**소정** 어, 어... 안녕.

**현우** 진짜 반갑다. 잠깐 얘기해도 괜찮아?

**소정** 어... 그래.

**현우** 사실 졸업하고 너한테 계속 연락하고 싶었어. 근데 네가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친구들도 네 소식 모르길래... 그냥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, 어떻게 이렇게 만나네?

다정한 말투로 소정을 대하는 현우. 더러운 자취집에 어울리지 않게 분위기가 조금씩 간지러운 설렘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다.

**소정** (의아하게) 나한테 연락하고 싶었다고?

**현우** 어, 사실 그때... 내가 너한테 되게...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었잖아. 그거 사과하고

싫어서.

**소정** (얼굴을 찌푸리며) 이제 와서?

**현우** 아 그치... 근데 내가 변명을 좀 하자면, 그때 내가 좀... 괴롭힘을 당했었거든. 강이준이랑 그 패거리 있잖아. 너도 알지? 아무튼 개네가 날 진짜 싫어했어서, 나 보고 너한테 가서 그런 말 하라고 막 협박했었어. 그 말 할 때도 뒤에서 개네가 지켜보고 있었고.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. 절대 진심 아니었어. 그래도 진짜 미안하다.

**소정** 그럼 왜 하필 나왔어? 개네는 왜 너 보고 나한테 그러라고....

**현우** (부끄럽고 멧쩍게) 아 그건. 내가 개네한테 들켰었거든. 내가 그때... 너 좋아한 거.

**소정** 뭐?

**현우** 몰랐어? 티 많이 냈다고 생각했는데... 아무튼 개네는 내가 너랑 사귀는 꼴 절대 눈뜨고 못 본다고 그런 걸 시켰던 거지. 한심하게.

**소정** 아니... 날 왜 좋아했는데?

**현우** (얼굴이 달아올라서) 하하, 너무 옛날 일이라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... 너 귀엽잖아.

**소정** ...

**현우** 아 내가 지금 별 소릴 다 하나? 미안...